

기쁨의 언덕으로 8 월호 소그룹 인도자용

저자: 권혁인 목사 (Rev. Hyok In Kwon), Oakland- Berkeley Korean UMC/CA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소망과 기쁨의 근거

본문: 예레미야 33:1-26

찬송: 322 장 (통 357 장)

490 장 (통 542 장)

542 장 (통 340 장)

1. 여는 질문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되찾았을 때의 전과 후는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물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반대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의 기쁨은 처음에 얻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처음 갖게될 때의 감정에다가 잃어버리고 난 후의 소중한이라는 감정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믿음도 되찾을 때 그만큼 기쁨이 커지던가요?)

2. 본문 이해

예레미야는 33 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빌론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9 절).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된다는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10-13 절). 물론 이것은 잠시 동안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가의 영원한 계승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14-17 절). 유다의 멸망 이후 다윗왕의 계보는 완전히 끊어졌지만,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 언약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져서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왕권 뿐만 아니라 제사장직의 회복을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18-22 절). 이처럼 왕권과 제사장직의 회복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당시 유다의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자 기쁨을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민족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교회는 더이상 교회로서의 가치와 존재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이미 더이상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교회건물을 그럴듯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길과 진리로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공간일 뿐입니다. 반면에 보잘것없는 작고 허름한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소망과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소망이자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되돌아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말씀 속으로

1.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3 절)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2. 다윗에게서 돌아 날 의로운 가지(15 절)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싹" (사 4:2), "순"(슥 6:12)과 같은 묘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유다가 파기한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인가요?(21 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첫째 다윗 왕위의 계승을 나타내는 왕권에 대한 언약, 둘째 레위 지파와 맺은 제사장직의 언약, 셋째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과 맺은 선택된 민족의 언약입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로 유다 백성은 이 모든 언약이 파기 되었다고 믿거나, 자신들도 잊고 지냈는데 예레미야는 이 모든 언약이 완전히 파기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삶 속으로

1.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교회와 가정,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3. 우리 삶의 참 소망과 기쁨의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암송구절 (시편 42: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자녀와의 나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예레미야 37:11-21

제목: 정말 두려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찬송: 379 장(통 429 장), 382 장(통 432 장), 384 장(통 434 장),

1. 여는 질문

인생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와 이유도 그만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순간에 믿음의 자녀로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본문 이해

이집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빌론 군대는 포위를 풀고 퇴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잠시 동안이기는 했으나 예루살렘의 포위망이 풀렸다는 사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그 동안의 의심과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짓 예언을 했다는 백성들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예레미야에 대한 핍박이 한층 격렬해 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를 피해 예루살렘을 벗어나려한 예레미야는 결국 이리야에게 붙잡혀서 고관들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전부터 책망과 심판을 예언하던 예레미야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그들은 이를 빌미 삼아 바빌론의 첩자로 그를 무고하게 가두고 핍박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어 세상과 완전히 차단시키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서 진실을 말하고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였던 예레미야가 오히려 비난과 핍박의 대상이 된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온갖 고난의 여정을 겪어야 했던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딤후 3:12)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악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서 부패한 탐욕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세력에게 말씀의 빛으로 치부를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좋은 말 그대로 눈에 가시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해야 할 지도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람들의 귀도 막아버리려 합니다. 백성들도 영적으로 무지하여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한 세상에 동조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순교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부패한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모멸과 형벌을 받아왔던 그에게 육체적 죽음은 더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빚 가운데로 이끌어야 하는데, 옥에 갇혀 버림으로써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 그는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어둠의 세력들에 당당히 맞서 싸우며, 진실을 끝까지 외치려 했던 까닭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핍박과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 할 하늘의 상급 정도로 여겼을 가능성이 큼니다 (마 5:12).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종으로 진정 두려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으로

1. 수문장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13-14 절)
(바빌론의 군대가 떠난 뒤에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자 그가 바빌론에 항복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의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잡아 가두려 한 까닭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시나요?
(15 절)
(이전부터 예레미야의 예언과 지도층을 향한 신랄한 비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고관들이었습니다. 바빌론에 항복하려 했다는 죄목은 이제까지 눈에 가시와 같던 예레미야를 핍박할 수 있는 구실을 얻은 셈입니다)
3.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죽을까 두렵다고 말한 것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0 절)
(예레미야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삶 속으로

1.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판의 이유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위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때 정말 두려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 신앙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고난과 아픔을 기쁘고 즐거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암송구절 (고린도전서 4: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나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할 때 더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예레미야 44:1-14

제목: 피난처 되신 주님

찬송: 80 장(통 101 장), 191 장 (통 427 장), 216 장(통 356 장)

1. 여는 질문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거나, 접하지 않아도 좋을 이야기에 자꾸 눈과 귀가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뿌리가 약한 나무일수록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마음의 중심도 굳건히 세워지지 않으면 유혹에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필요없는 외부의 이야기에 눈과 귀를 빼앗기는 것도 문제지만, 안해도 될 말을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중심이 흔들릴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말과 행동에도 무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본문 이해

바빌론의 통치를 벗어나 유다 백성들은 생활 터전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일부는 이집트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들은 점차 이집트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면서 이집트의 문명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동화 현상은 우상 숭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화려하고 풍족한 이집트의 물질문명에 이끌리어 신앙의 뿌리 조차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중심을 잃고 이방의 문화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유다인들을 향하여 과거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이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고자 했습니다(2-3 절). 이를 통해 장차 받게 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상숭배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만큼 파급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7 절). 개인의 신앙상태가 자신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영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도 개인의 육체적인 형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속한 모든 관계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단절과 소외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서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나아가 주변과의 관계도 소원해 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과 판단이 초래하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국가의 파멸 뒤에는 이처럼 신앙의 중심을 잃고 무너진 개인들의 영적 타락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혼돈으로 가득찬 시대에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음을 편히 맡기고 의지할 곳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사는 모습이나 주변환경을 보면서 무너진 고국 보다 이집트의 환경은 더 기댈 만한 산성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잊고 지냈던 한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시 121:1)"라는 다윗의 질문입니다. 거대한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 정말 우리를 지켜 줄 피난처가 있는지 되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떠한 요새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믿었던 요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오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평안 속에서 한가롭게 행한 찬양이 아닙니다. 사울이 보낸 자객에 의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행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환난이 닥쳐와도 그가 구해야 할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래서 자신이 안식을 찾아야 할 영원한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므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시 59:9)"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고국을 떠나 이민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신앙의 중심도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말씀 속으로

1. 유다가 범한 하나님을 노하게 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3 절)

(하나님은 유다가 행한 죄악을 역겨운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4 절).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 지속해서 이러한 사실을 그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이를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5 절).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2.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큰 악을 행하여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7 절)

(우상숭배는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큼니다.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염처럼 퍼져나가는 파급력에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이 서로에게 미칠 때 공동체는 죄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삶 속으로

1. 고국을 떠나 이국 땅에 살면서 신앙에 도전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나요?
2.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불순종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나요?
3.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암송구절 (시편 91:2)

“내가 여호와에 대하여 말하리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다.'”

자녀와의 나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예레미야 51:45-53

제목: 이스라엘을 향한 권면

찬송: 180 장(통 168 장), 336 장 (통 383 장), 343 장(통 443 장)

1. 여는 질문

과거의 경험이나 역사적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지나간 과거는 오늘의 우리에게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잘한 일은 따라가야 할 모범이 되지만 잘 못한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조가 남긴 믿음의 유산은 오늘 우리에게 본 받아야 할 제자의 길로 남는 반면 불순종의 결과는 극복해야 할 신앙의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과 믿음 생활이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2. 본문 이해

예레미야는 칼을 모면하여 살아남은 유다인들에게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빌론의 3차 포로사건(BC 586)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빌론이 유다인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갈 것을 주문한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는 영원한 도시가 없으니 장차 오게 될 예루살렘,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히 13:14). 사실 이 땅의 예루살렘도 이전에는 난공 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졌지만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에게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50 절). 오히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남아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로 예레미야는 바빌론에서 떠돌게 될 온갖 폭력과 지배층 사이의 내분에 관한 소문을 예로 들었습니다(46 절).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기 이전에 바빌론의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반역과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 예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레미야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이는 당대의 최고 세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백성들은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신뢰하며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면,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빌론에 포로가 되어 가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는 신앙을 유지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영적 소망을 품고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주의 날을 함께 맞이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까닭입니다(마 10:22).

말씀 속으로

1. 유다의 백성에게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 말라고 권면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46 절)

(바빌론 땅에서 벌어질 분쟁과 갈등은 유다인들에게는 구원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습니다. 우상의 파멸과 이민족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일어날 사건에서도 적용됩니다 (마 24:6). 둘 다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징조가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2.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권면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다(50 절)

(서성거리지 말고 떠나야 할 곳은 바빌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민족의 해방을 예언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어디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예루살렘에 두라는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몸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서성거리지 말고 떠나야 할 것은 이 시대의 헛된 풍조와 우상이 아닐까요?)

3. 52 절의 '그 날'은 언제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 날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상태에서 회복되는 순간을 뜻하지만, 더 큰 의미로 본다면 그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구원의 때를 가리킵니다. 둘 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 속으로

1. 신앙인이 가장 담대해져야 하는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이 들어 신앙으로 극복해야 할 순간이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신앙을 전해야 할 순간 등 여러가지 사례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2.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신앙적으로 시험 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의 권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주님을 늘 생각하며 마음의 중심에 두기 위하여 어떠한 신앙의 훈련을 실천하고 있나요?

(각자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고 있는 영적 훈련이나 방식에 대해 나누어도 좋습니다)

암송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와의 나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언제 가장 자랑스러운가요?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까요?